3원 통합, '견제·균형' 바탕돼야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조계종 중앙종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30년 만에 조계종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다. 조계종 현 조직의 특징은 3권분립과 3원조직이다. 3권분립은 조계종 조직이 정부 조직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립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각각의 기능을 중앙종회·호계원·총무원이 수행해왔다. 그런데 조계종의 행정부에는 총무원 이외에도 교육원과 포교원이 있으며, 통상 이를 집행부 '3원'으로 지칭해왔다.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 총무원으로부터 승가교육과 포교업무를 분리하여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別院)으로 독립시켰다. 교육원과 포교원의 별원화는 △도제양성 △포교 △역경이라는 조계종 3대 지표를 실현함과 더불어 총무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종권을 분산시키고자 함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30년이 흘렀고, 그동안 사회 환경은 매우 달라졌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출가자와 신도 수도 급감했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교육과 포교에 있어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생존할 수 없다. 종교조직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계종의 3원 통합은 위기에 놓인 종교조직의 시대적 결단이다.

3원 통합, 변화에 따른 시대적 결단
승가교육, 포교 행정 효율성 기대돼
총무원장 인사권, 재정권 강화 예상
중앙종회 견제 중요…균형 발전 요구

분명, 3원 통합의 조직 개편은 3원 간 업무의 중복성 해소를 토대로 교육과 포교에 대한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줄 것이다. 그런데 3원 통합은 총무원장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조계종의 조직구조가 개혁불사 때처럼 총무원장에게 종권이 집중돼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통합되는 것은 총무원장의 인사권 및 재정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중앙종회의 총무원 견제 기능이 그만큼 더 작동해야함을 시사한다. 물론 중앙종회가 총무원을 견제만 해서는 안 되고, 사안에 따라서 지원·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종단조직구조가 3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는 한 중앙종회의 총무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종단의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종회에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는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의 부·실장 겸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의 부·실장을 겸직하게 되면, 그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의 지시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힘들어진다. 향후 종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는 총무원과 중앙종회 간 견제와 균형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

불교조직 관리에 있어 최고의 준칙은 화합이다. 인사관리도, 재무관리도, 그리고 조직관리도 교단·종단·승단의 화합이 깨지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번 3원 통합의 결단이 조계종의 발전은 물론 화합을 이루어내는 촉매가 되었으면 한다.

중독, 상실감 탈출이 우선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한 부모는 초등학생 아이를 해외 유학에 보냈다. 이후 성인이 된 자녀가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자식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마약 사용 흔적을 모두 지웠다. 그 덕분에 자녀는 수감자 생활을 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녀의 마약 사용은 멈추지 않았고 부모는 길을 잃었다. "그때 그만 잡히게 놔두었더라면, 그래서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지금은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모두 고통의 상태였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섹스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의존 때문에 상담실을 찾는다. 도박중독치료센터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치료센터를 찾았다. 그는 공허함 때문에 계속 도박장에 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공허함이나 외로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고통이 유지되는 한 가지 요인은 고통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회피는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이다. 그는 공허함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도박으로 도망친 것이다. 방어는 감정을 느끼면서 생기는 고통과 압도적인 감각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일종의 보호막이자 무의식적인 마음의 장치이다.

중독자 대부분 의존감 상실 경험
'안전'하게 '의존'할 시기에 상실
의존에 더욱 집착하며 중독으로
우선 중독을 의존으로 바꿔보라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밝히겠다는 취지로, 1930년대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72년 동안 과학적이면서도 문학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42년 동안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정신과 전문의 조지 베일런트는 "상처가 나면 몸 안에서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응에 따라 피가 응고된다. 혈액의 응고라는 현상 덕분에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반면 그것이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하듯이, 방어기제 역시 우리를 구원할 수도 나락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중독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치료의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몸에 쌓인(集) 부정적인 감정과 접촉하는 것이다. 붓다가 사념처(四念處)에서 알려준 그 방법이 치료에 활용된다. 중독자의 성장 과정을 탐색하면 대부분 가장 안전하게 의존해야 할 어린 시절에 그것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난 과정이 있다. 예컨대 부모의 말다툼, 학대, 유기, 정서적 방임, 과잉보호, 엄격하고 통제적인 양육환경,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불안정한 분위기 등이다.

'중독'을 '의존'으로 바꿔보라. 중독의 다른 면은 의존이다. '안전'하게 '의존'해야 할 시기에 그것을 '상실'한 아이는 의존에서 벗어나서 할 시기에 도리어 의존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된다.

인간의 욕망은 결핍에서 온다. 의존을 욕망한다는 것은 의존의 결핍을 의미한다. 중독자를 꾸짖고 비난하기 전에 그 존재가 상실한 것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보자. 어린아이가 해외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했을지. 부모가 싸울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안전감이 치료의 시작이고 안전하면 감정이 조절된다. 감정이 조절되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

社 說

'나눔의집' 존립, 국가가 나서야

개원한지 30년이 지난 나눔의집은 이제 자신의 역사적 소명을 다해가고 있다. 나눔의집에는 할머니 3명뿐이고, 모두 90대 중반을 넘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이 양로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리는 역사관을 운영할 법적 근거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이다. 시설 자체가 역사인 나눔의집 존립 자체가 위기 상황인 것은 정말 씁쓸한 일이다. 특히 이제는 역사 기록과 추모·교육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불교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은 3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은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양로시설이 폐쇄되면 부설기관인 역사관을 운영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전 장관 사임 이후 후임 장관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은 '역사관 존치'를 기본 입장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 특수법인 설립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징용은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전쟁이 인간성을 어떻게 말살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나눔의집은 그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다. 이에 대한 존립은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이다.

스무 살 로터스월드에 거는 기대

지금 불교계는 국제구호 NGO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1990~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불교 국제구호 NGO는 타 종교보다는 그 수나 활동이 뒤졌던 것은 사실이다. 2000년대 중반 불교계에는 이후 적지 않은 국제구호 NGO들이 창립됐다. 2004년에 출범한 로터스월드로 이 같은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지만,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와 활동상을 보여주는 국제구호 NGO로 손꼽힌다.

로터스월드가 주 활동 국가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진출했던 캄보디아에는 BWC아동센터(Beautiful World of Cambodia)를 건립하고 현지 청소년들의 교육 사업을 펼쳤다. 이를 통해 50여 명의 졸업생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지금도 센터에는 17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처럼 로터스월드의 구호사업은 물품 지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프라 조성과 함께 현지인이 자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이 로터스월드 구호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메리트다. 이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사장 성관 스님의 철학과 맞닿는다.

'처염상정(處染常淨)'은 연꽃을 표현하는 말이다. 더러운 곳에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는 말로, 연꽃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20살 청년이 된 로터스월드가 자비로 세계에 그려나갈 연화세계를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평일 아침 7시 30분!
보고 싶은 스님들을 만나보세요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3:1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송산, 일각, 지형스님의 이판사판 - 맛수다 시즌2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20:30 / 일 14: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시즌3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19:00

동훈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3:15
스마트하게 BTN불교TV를 시청하는 방법
TV를 통해서 시청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케이블TV는 지역별 채널번호가 상이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www.btn.co.kr 홈페이지 접속 후 ' 온에어' 메뉴 클릭!
앱을 통해서 시청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 BTN불교TV' 검색 후 무료 다운로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유튜브 검색창에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검색 후 구독과 알림설정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